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13-16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 시제형이 아닙니다.

현재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말씀해볼까요?

“당신은 짠 사람입니다!”

먼저, 소금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소금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나 고기를 절일 때,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김치를 많이 담가보지는 않았지만 소금을 아낀다고 배추 절일때 조금 넣었다가 김치를

아예 못먹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치가 왜 이런가 싶었어요. 색깔이 평소 보던 김치 색깔이 아니더라구요. 냄새도 이상하구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소금 문제였다는걸 말입니다.

소금이 없다면 음식은 금세 상하고 썩어버립니다.

둘째로,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빠진 음식은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도 맛이 없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참맛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이 두 가지 역할을 염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썩어가고 부패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뿐더러

우리가 세상에 참 생명의 맛과 복음의 맛을 맛보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죠? 소금은 늘 짜잖아요?”

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산 소금이 싱거웠던 적 있었나요? 없지요.

소금이 아무리 오래돼도, 예를 들어, 오랜만에 주방 선반 정리를 하다가 저 구석에 오래된 소금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못해도 5 년은 넘었을꺼 같습니다. 10 년이 되었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 맛을 보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소금이 짠맛이 없을까요? 그 소금도 여전히 짭니다. 어떻게 아냐구요? 제가 해봤거든요.

우리가 아는 순수한 소금은 시간이 지나도 짠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달랐습니다.

1 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주로 **사해(Dead Sea)** 에서 소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 같이 정제과정이 발달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소금에는 모래나, 먼지, 석회질 같은 불순물이 섞이기가 쉬웠습니다.

그 불순물이 많아질수록 짠맛은 약해지고,

결국 아무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건**

소금 자체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소금 안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와 욕심이 스며들고,

죄악이 섞이면 짠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별 다를게 없게 됩니다. 거룩함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패에 가담을 하거나, 혹은 가속화 시키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상에 생명의 맛, 복음의 맛을 내야 되는데, 도대체 그 맛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오히려 혼란스러워할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기에 순수한 소금 한 그릇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하얗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소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저것을 섞어보겠습니다.

- **대중 문화** – “다들 하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 **세상 가치** –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딴어요?” “우리 좀 현실적으로 삽시다.”
- **세상 철학** – “신앙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지.”
- **가족 전통** – “우리 집은 늘 이렇게 해왔어.” “우린 늘 이렇게 살아왔어.”
- **죄와 타협** – “조금쯤은 괜찮겠지.” 욕심, 교만, 거짓말, 게으름.

이제 이 소금은 어떤가요?

흙이 섞이고, 색도 바뀌고, 냄새도 납니다.

누가 이 소금을 음식에 넣겠습니까?

결국 버려지고, 밟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소금**입니다.

이 세상이 필요한 것도 **순수한 소금, 거룩한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러면, 무엇이 과연 '소금'인가?
우리가 변치 않고 그 순수성을 지켜야 할 그 맛,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짭맛은 무엇인가?

그 답은 마태복음 16 장에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아라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짚맛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Jesus is the Lord!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짚맛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있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런 고백 해봤지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언제 그 고백을 했는지,

어디서 그 고백을 했는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그 고백을 한 것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멈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언제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역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득차있던 변화산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쉽게 말해서 **우상들과 신전들이** 가득차 있던 곳입니다.

바알을 위한 제단이 있구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구요,

그리고 그리스 신 **판(Pan)** 을 모신 동굴도 있었습니다.

그곳은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을 한다거나 성경공부를 한다고 하면, 아마 생각도하지 않을 만한 장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온갖 잡음과 세상적인 유혹이 가득한 장소.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구요,

쇼핑몰일수도 있구요,

아니면 아마존을 검색할 때일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현장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난 주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가족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에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Multiplication Training 이 있어서 혼자 다녀오려고 했는데, 최근 아내가 새로운 직장 첫 출근 날짜가 잡히고, 또 찰스턴이 역사적인 도시라고 하여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좋은 기회가 될꺼 같고해서, 장인장모님과 함께 다같이 트레이닝 겸 가족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가보신 분들 아실겁니다.

참 아름답지만 마냥 아름다움에 취할 수만은 없는 노예들의 눈물과 애환이 서려있는 참으로 한이 많이 서려있다는 느낌을 주는 도시였습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여행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부터 이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채우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물론, 여행이니까 신나고 기대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들 여행 좋아하시죠?

아이들도 신나했습니다. 매일 해야하는 공부도 안해도 되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시간만 나면 영화 보자고 조릅니다.

저는 또 여러가지 일정에 쫓기고 하다보니,

어느새 제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너무나도 쉽게 빼앗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우리 지금 가정예배 드리자.

이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이 여행을 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닫고, 채우게 하실 뭔가가 있으실꺼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자.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소금은 **교회 안에서만 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 안에서, 일을 하면서, 또 여행지에서도 짜야 한다는 것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을 벗어나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여전히 주님이라 부르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낼 짠맛은 교회당 안에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내야할 짠맛,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신앙고백이 필요한 곳은 교회당 밖에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부부 간에 대화 가운데, 자녀들과의 시간 가운데,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일을 할 때, 이웃들과 마주칠 때,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그 공간 속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진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죠.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제일 가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선반 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음식에 뿌려질 때**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두지 않고,

높이 들어 온 집안을 비출 때 바로 그 빛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내야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능력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때마다

짠맛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그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 영적 대각성운동, 모든 부흥의 본질은

바로 주님이 이 교회 뿐만 아니라, 내 가정 속에, 내 일상의 삶 속에, 내 시간 속에, 내 욕망 속에, 내 감정속에, 주님이 주님되시게 하는 것, 바로 그 짠맛의 회복이었습니다.

D. 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채워져서는 안됩니다. 배는 물에 떠있어야 하지만 물이 배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으로 채워지면 결국 가라앉을수 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스미스채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짠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되시는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 일상을 살아가는 그 곳, 그 시간 속에 짠맛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이 드러날 때, 먼저는 내 마음과 삶이 더욱 거룩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변하고,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이 변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복음의 참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짬맛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잡은 불순물들을 다시 깨끗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짬맛을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그 짬맛과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묵상질문:

1.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2. 내 삶에서 짬맛(믿음의 순수함)을 잃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3. 나는 가정이나 일터에서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4.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5. 이번 주에 짬맛을 회복하기 위해 한 가지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